



새만금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

지난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현숙 여가부장관, 박보규 문체부장관, 김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비롯한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들이 회의를 갖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 랜드마크 마련하자”

김관영 도지사, “전북 특화 국비 사업 중 민간자본 참여 금융기법 도입 등 신선한 사업 발굴” 강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방소멸에 대응한 전라북도 랜드마크 사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열린 전북도청 건부 회의에서 “기재부가 2024년 시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랜드마크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북에 특화된 국가예산 사업 중 민간자본이 참여할 금융기법을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등 신선한 사업을 발굴하자”면서 이날

이 말했다. 이어 지역산업은 기업과 기술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북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전략산업 육성방안도 상향식으로 준비하자”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지역 현안사업을 점검하고자 전북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전북공약과 국가예산 사업을 건의했으며, 정

부예산 편성방향 등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김관영 지사는 교육부 RIS 예비 선정, 문체부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및 고용부 4개분야 공모 선정 등 연이은 중앙공모 선정에 노력한 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상반기 공모선정이 집중된 4월까지 중앙공모의 단계별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가뭄이 지속돼 산불경보가 주의단계로 격상된 시점에서 산불과 화재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등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3·1운동 현충 시설 관리상태 지속 점검 등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관리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도, 고향사랑기부제 2차 답례품 선정

생생장터 온라인몰 포인트 쿠폰 등66개 품목 추가 선정

전북도는 전라북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2차 답례품 66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추가된 답례품은 농·축·수산물 17종, 가공식품 29종, 공예품 10종, 농촌체험마을 이용권 등 관광·체험 서비스 2종, 발효차량 서비스 등 유·무형 서비스 2종,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입장권 전북 생생장터 온라인몰 포인트 등 유가증권 3종, 정가배송 이용권, 잔여 포인트 기부하기 등 기타 3종이다. 도는 이번 답례품 선정에 있어 생산품의 인지도, 기부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 인구 형성을 통한 지속적 기부로 이어지도록 특색 있는 상품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28일부터 추가된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개모집 하고 있다. 공모방식은 기존 공모방식인 일방공모와 다양하고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을 위해 공급업체가 직접 답례품을 제안하는 방식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사업체(개인)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사업 신청서 등을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지실사와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며, 5월부터는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새롭게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소비자 선호도를 파악하고,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해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라북도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며,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매력적인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후백제 왕도 전주, 천년역사문화도시 ‘공고히’

역사문화권정비법 후백제문화권 포함 기념 국회서 토론회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전략계획 수립 방안 제시 ‘눈길’

1100여 년 전 고대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나라이자 가장 강력한 기세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후백제의 역사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된 것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이 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중원역사문화권(충북, 경북, 강원 일부) △애막역사문화권(강원) △후백제역사문화권(전북, 전남, 광주, 충남, 경북, 충북) 등 9곳이 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윤덕·이윤호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김성주·안호영·한병도·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 방향 국회토론회가 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17일 공표·시행된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포함된 것을 기념하고,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문화재청에서 시행중인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9번째 역사문화권이 된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전북과 전남, 광주, 충남, 경북, 충북 등 후백제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분포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허인욱 한남대학교 교수는 후백제에 대한 다양한 시료를 바탕으로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영역을 정의하고, 후백제가 한국사에 큰



1100여 년 전 고대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나라이자 가장 강력한 기세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후백제의 역사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된 것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영향을 끼친 고대국가인 만큼 반드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진정환 국립의산박물관 학예실장은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계획 수립방향을 주제로 역사문화권정비법의 법제화 과정과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향후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김준순 나주시청 학예연구관은 바한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사례를 주제로 나주시의 바한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후백제)역사문화권의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이재은 전주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성래 문화재청 고도보존정책과장과 김승대 전라북도 학예연구관, 이경찬 원광대학교 교수, 광장군 군산대학교

교수, 임원식 문경시 문화예술회관장, 김병남 전북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도 펼쳐졌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 국회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내용을 향후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할 정비시행계획 수립(조사·연구·정비·활용) 시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비시행계획’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구역의 지정과 사업실행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후백제역사문화권 지정을 통해 향후 전주시가 조선왕조의 본향이자 후백제 왕도로서 천년역사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전주 고도 지정과 함께 왕의궁원 프로젝트와 연계해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전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 민간개발 공모 협상 지원 전문가 위촉

새만금청, 정부협상지원단 구성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3건의 공모사업과(테마마을, 첨단복합, 해양레저) 관련 해, 정부 측 협상을 적극적으로 보조할 협상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 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적인 급대인상 및 물가상승, PF 금융시장 경색 등 악화된 사업환경에 대응해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협상 간 전문가의 지원이 크게 요구된다. 이에 토지주택연구원을 비롯해 금융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협상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정부협상지원단으로 위촉했고, 향후 공모사업 협상 시 새만금개발청과 자리를 함께 할 계획이다.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공모사업 협상에서 정부협상지원단이 전문적인 의견을 발취해 새만금개발청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간극을 좁히고 성공적인 사업모델 도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현황 및 협상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일정, 주제 등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협상지원단은 사업의 실현가능성,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의 어려운 사업 여건 속에서도 협상이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협상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해 그간 진행했던 공모사업 협상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겠다.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할 성공적인 민간개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협상지원단이 지혜를 모아 협상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를 재선거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내년 총선에서 선택 받을 것”

국힘 정운천 의원, 전주를 재선거 출마 포기 선언

여·야를 아우르는 생방송 정치대를 외치며 오는 4월 5일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 수소탄소국가산업단지 지정,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지정 등 현역의원으로서 전북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한 후 시골 시정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중앙 정치권의 양극단이 정쟁 속에 언급한 당면 과제들은 해결이 안됐으며 모든 전북 현안들이 불발출처를 뻔뻔하게 갔다고 발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 등 여·야 대립은 최고조에 달해 현안 해결은 안된 채 2월을 넘기고 말았으며 당면한 현안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시작하고 재선거에 출마하는 것

이 과연 맞는 일인가 묻고 또 물었다”며 출마 포기 이유를 들었다. 정 의원은 또 “협치가 잠시라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전북 현안 문제 해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추가입법 및 특례사업 발구를 위해 보강된 국회의원 임기를 채워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말하며 “이러한 뜻을 받아 전주를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골격만 만들어진 전북특별자치도 추가입법 등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생방송 정치의 성과를 내어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라며 “당당히 내년 22대 총선에서 선택을 받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감에 대한 질의에 정 의원은 “어제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대통령께서 양해를 해 주셨다”고 밝혔다. /뉴스1

“무소속 후보간 연대, 이제 소멸됐다”

김호서 전주를 예비후보 “정운천 불출마, 합리적 결정”

4·5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호서 예비후보(무소속)가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에 대해 결단을 존중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문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정운천 의원은 훌륭한 의정활동과 탁월한 리더십을 지닌 신념과 행동의 정치인”이라며 “원칙과 명분 전북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어긋나지는 저의 충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비록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정 의원님의 국회의원으로서 전주시민들에게 기여한 점과 경험 등은 소중한 전주민의 자산이 아닐 수 없다”며 존경의 뜻을 표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이번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더이상 정치권에 발붙이지



전주시을(삼천동, 서신동, 효자동)재선거 김호서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 못하도록 깨끗한 전북정치의 새시대를 여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범대경쟁이 없는 후보 저 김호서가 앞장서 해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님의 불출마로 무소속 후보간 연대는 이제 소멸됐다”라며 “끝까지 완주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